

◆ 스페인 전력사, 나이지리아와 LNG 장기구매계약 체결

스페인의 대형 전력회사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최근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NLNG)사와 LNG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매량은 총 5억 m³에 달하며, 2005년부터 인도가 개시될 예정이다. LNG는 스페인 남서부의 웰바(Huelva) 수입터미널을 거쳐 스페인 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에서는 LNG 수입터미널의 증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신설 등의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 가스발전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이베르드롤라는 2001년 10월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이 진행한 발레트해 스노비트(Snoviet)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어 2002년 3월에는 알제리 액화수소공사(SONATRACH)와 LNG 장기수입계약을 체결하여 가스 조달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NLNG는 나이지리아의 보니 섬에 건설된 가스액화설비 1·2계열로부터 연산 60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 한편, 11월에는 현재 건설중인 3계열(300만 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스페인의 구매계약분은 2005년 완공예정인 4·5계열(합계 800만 톤)에서 생산되는 LNG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4·5계열 건설공사는 日揮·미국 KBR·프랑스 테크니프·이탈리아 수남프로제티 컨소시엄이 총액 2,200억 엔에 수주한 바 있다.

【金 廷 勳】